

결혼과 여성의 지위 - 가난한 여성들의 '무능력' 연기

빈곤 속의 가부장 길들이기

돈을 버는 능력과 여성의 지위는 꼭 비례하는가?

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대체로 그렇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의 사정은 돈과 여성의 지위의 관계를 무척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여자가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질 때 여자의 지위가 높아지기는 커녕, 더 심한 억압상태로 빠지게 되고, 자부심은 보다 수치심을 느끼며, 그래서 비밀에 부치지만 결코 비밀이 될 수 없는 등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모양새를 보인다.

"여자가 돈벌면 서방 망친다"
가난한 여성들의 인생철칙

서울 마포구 0동 일대는 단칸방 살림에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빈민집단 거주지다.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건설중이고 보상을 받은 이들이 주변으로 전세를 얻어나가는 중이어서 해체중인 빈민촌이다.

빈민촌의 특성이 그렇듯이 이 동네의 여자들은 닥치는대로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오는 여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동네 여자들은 "여자가 돈벌면 서방 망친다"는 것을 인생철칙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은 '그래서 여자가 돈을 안 벌면 좋겠다'는 의미보다는 '남편에게 여자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실제로 여자의 벌이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고 여자의 벌이로 아이들 교육이 가능한 가정은 대부분이어서 이 동네 여자들은 돈을 벌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여자들의 수입이 좋아지면 남편들이 일자리를 놓고 술과 노름으로 허송세월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아왔다. 남편들이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 동네 여자들은 "남자 노는 꼬라지에 울화가 치밀어서 벌고 싶어도 못 본다"고 말하곤 한다.

이 동네 여자들에겐 어떻게 남편을 생계부양자 역할에 잘 묶어 두는가가 결혼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과제다.

'빈곤의 성'을 지키는
가부장 군주들의 이중성

중산층 남자들은 직장과 거기서 파생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결혼생활에서 우월한 위치를 확보한다. 이들에겐 남

자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맞벌이 부부가 되더라도 남자의 수입이 더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에겐 그만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능력을 기반으로 가족들에게 돈 걱정을 시키지 않는 것이 '성실한 가

여주'는 지영숙(40) 씨네 집. 나이 40에 대학간 딸이 있는 지 씨는 평생 철없는 남편에게 '가장 노릇'의 율가미를 씌우기 위해 싸워온 아내다. 지 씨는 그 동네 여자들 중에서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로 소문난 사람이다. 지 씨의 남편은 얼마간 일하다가 쉬고 또 다른 일 잡아서 얼마

이다. 남편의 취직도 지 씨가 수소문해서 알아본 것이고 나가기 싫다는 남편을 '꼬집고, 옥박질러서' 겨우 내보낸 것이었다. 남편은 수시로 나가기 싫다고 말하고 아내의 부업을 알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 그의 출근 일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그럴

선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 등은 여자의 머리 속에만 들어 있는 문제이다. 이 동네 여자들은 남편 모르게 아이들 먹을 음식을 '공쳐' 두곤 한다. 남편이 알면 다 먹여치우기 때문이란.

이런 여자들에게 남편이란 무엇일까? 단칸방 살림에서 결렁결렁하게 놀며 지내는 남편들, 말로는 돈벌이 다니는 아내에게 남자 망신시킨다고 호통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즐기며 사는 남편들, 아침에 일어나는 여자를 끌어당겨 '대주기'를 원하는 남자들, 비디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기밥솥은 사치품이라고 말하는 남자들...

한편 철없고, 한편 무능하고 그래서 더 억압적인 남편을 다독이면서 살아가는 억척 내기들이 가난한 동네의 여성들이다.

자아실현 보다
수세식 화장실을 원한다

중산층 여성들도 남편을 다독여야 한다. 생계부양자 역할을 잘해 오던 중산층 남편들도 때로는 맥없이 쓰러지고 좌절하기도 한다. 중산층 여성들의 다독임은 이런 남편들을 일으켜 세워 다시 사회로 나가게 만든다. 남편이 없어져 버렸을 경우에 몰아닥칠 상황, 그야말로 <엄마의 바다>와 같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대비하려는 생존의 전략

이것도 할 것이다. 그러나 빈민층 여성들에겐 이런 종류의 두려움 따위는 없다. 그야말로 '밀바닥 인생'의 전문가들이기도 한 이들 억척내기들은 남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생계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남편 길들이기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무위도식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들에겐 안정된 수입을 지속적으로 벌어들여오는 남편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 이상적 모델이다. 심리적으로 이 이상적인 모델에 다가가려는 열망이 무척 강하다. 교육수준이 낮은 탓 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에게 여자의 자의식이라든가, 자아발견, 자아실현 등등의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보다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썩크대가 놓여 있는 부엌과 장식장과 소파가 놓여 있는 거실, 흠뻑어려 입고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데서 생기를 느끼는 편이다.

앞서가는 중산층 여성들이 실컷 즐기다가 이제는 버리고 싶다고 외치는 삶의 조건이 이들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선망의 대상인 것이다. 빈곤이란 여성에게 종속의 대가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효선 기자>



부장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동네의 가부장들은 입으로만 가정의 역할을 다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내들이 돈벌이를 하면 "나를 여자 돈벌러 다니게 만드는 남자로 만든다"면서 상처 받은 가부장의 분노를 발산한다. 그러나 여자의 수입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기미만 보이면 잘 다니던 일자리까지 놓고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밖으로 나온다"고 아내를 야단치지만 "내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이 여자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들여"라는 말을 알고 있다. 또 이 남편들은 "내가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먹고 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더 당당하게 아내의 돈벌이를 반대하고 나선다.

모름지기 입으로 '남자되기'를 해냄으로써 권위와 자존심을 세우고 아내의 노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평 먹고 알 먹는" 실속파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다.

남편 교육 위해
무능력을 가장하는 여자들

이런 부부관계의 전형을 보

간 일하다가 쉬고 하면서 놀 수 있는 기회만 엿본다. 남편이 그럴 기미를 보일 때마다 지 씨는 "당신이 못 벌 어오면 우리 식구는 굶어죽 게 된다. 난 돈 벌 재주가 없다"고 아내 '나가자빠지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지 씨의 이런 전략은 오랜 체험에서 나온 결과다. 그는 기질상 또순이 형에 속하는 여자이고 지금껏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온 능력있는 여자다. "난 단 한푼도 못벌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도 그는 웨딩드레스 대여복 세탁, 웨딩드레스 입혀주기, 스웨터 끝손질, 미싱일 등 온갖 일을 단가 좋은 것으로 골라서 하고 있다. 몇년 전에 남편 버릇을 잡겠다고 2년간 가출을 단행했을 때는 이발사로 일하기도 했다. 지금도 그의 일은 철저히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면 집으로 돌아가서 "밥하는 것 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여자"인 양하고 남편을 맞아들인다. 그의 남편은 지금 버스 회사 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자금도 다 나오고 월급도 괜찮아서 오랜만에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중

수록 지 씨는 무능력을 가장하며 "우리 다섯식구 목구멍이 당신 벌이에 달려 있다"고 바가지 굵기에 열심이다. 지 씨의 부업은 더욱 지사로 잠적해들어 간다.

아내가 도배기술 익히자
노름으로 집 날리는 남편

또 다른 집에서는 여자가 도배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게 되자 남편은 노름방에 들어앉아 빚을 지기 시작했다. 여자의 수입이 안정되면서 오랜만에 단칸방 생활을 면했었다. 그러나 남편의 노름빚 때문에 방 한칸을 다시 전세로 내놓아야 하게 됐다.

이 동네 여자들은 남편 모르게 만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보석반지를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없는 남편'들이 알게 되면 '날리게' 되니까 만주머니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이 동네 여자들이 악착같이 돈 벌이에 나서는 이유는 단순하다. 오늘 저녁 상에 아이들에게 소세지 반찬이라도 하나 더 올려놓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등록금 못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동네 문화에